

## 307억 투입하는 남구 양림동 역사문화마을 역사는 없고 인공물 덕지덕지

광주의 대표적인 근대문화유산이자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 유적이 남아있는 남구 양림동을 역사문화마을로 조성해 관광자원화하는 사업이 당초 취지와는 달리 인공시설물과 편의시설 설치 위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고층이나 복원에 집중하기 보다는 사후관리를 위해 대리석 바닥, 합성목재 등으로 역사문화 공간을 채우고 있어 다른 지역과의 차별화에도 실패했다는 목소리가 높다.

6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307억원을 들여 남구 양림동 일대 20만㎡에 역사문화마을 관광자원화 사업을 추진중이며, 우선 30억원을 들여 선교사 묘역 조성 및 산책로 설치, 우월순 선교사 사택 보강공사 등을 마치고 지난해 말 1차 사업을 준공했다.

또 올 상반기 내 3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남구 양림동 호남신학교 맞은편에 지역 최초로 연면적 815.22㎡에 광주근대사립학교 및 의료원 기념관을 복원할 방침이다.

그러나 1차 사업이 준공된 뒤 근대역사문화 복원을 통해 관광자원으로 조성하겠다는 의도와는 달리 보행자 편의와 사후관리, 공사비 절감 등을 위해 선교사 묘역으로 향하는 언덕에 합성목재 데크를 설치해 논란이 일고 있다.

또 주변 단독주택이 골목길은 동구 총장로 바닥재와 유사한 4각형 대리석으로 포장해 역사문화마을이라는 의미와 어긋난다는 주장도



선교사 묘역 인근 '고난의 길'은 대형 화강암 계단을 설치했으나 간격이 들쭉날쭉해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다는 것이 방문자들의 불만이다. /4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고난의 길’에 대형 화강암 계단 부조화 선교사묘역 언덕엔 합성목재 데크 조잡

제기됐다. 선교사 묘역 인근에 대형 화강암으로 계단을 만들고, 검은색 화강암과 불꽃 등을 배치한 명상의 벽을 조성했으나 그 의미도 불분명하다는 것이 방문자들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설계에서부터 조경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양림동 역사

문화마을 조성사업이 근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이를 통한 관광자원화보다는 도보자의 편의성만을 강조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박모(54)씨는 “전국의 기도교인은 물론 세계 각지의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는 명소를 동네 주민들의 걷는 길로 만들어버렸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과다한 시설을 설치해 오히려 선교사묘역과 선교사 사택 등이 왜소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보강공사를 마친 우월순 선교사 사택은 사전에 활용방안에 대해 검토하지 못해 문이 잠긴 채 방치되고 있고, 대리석 바닥재가 깔린

주택가 골목길 양측은 자동차 주차장으로 변해버렸다. 지난해 말 작업이 끝났지만 묘역 주변 ‘기와 썩기’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은 채 천으로 덮여 있어 방문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인근 주민들의 요구가 많아 보행자들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면서 빚어진 문제”라며 “각 시설마다 의미를 담아 설치했지만 방문자들에게 그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듯하며, 겨울철 이상기후로 인해 발생한 하자보수는 조만간 마무리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여수엑스포 D-400...제2차 참가국 회의 첫 ‘사이버박람회’ 성공 기대

### 스페인 전시주제 공개...피카소展 등 추진

내년 여수에서 열리는 '2012여수세계박람회'는 IT와 인터넷을 활용한 세계 최초의 박람회로 성공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관련기사 3면>

또 여수엑스포 개최 D-400일(8일)을 앞두고 참가국 가운데 처음으로 스페인이 전시 주제를 공개하고 엑스포 기간동안 플라시도 도밍고 공연과 피카소 전시회를 추진하는 등 참가국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6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제2차 참가국 회의”를 열고 박람회 준비사항 설명과 함께 국제관 전시시설 설치 및 철거방법, 문화화술행사 추진 계획, 교통·숙박 및 박람회장 운영계획 등 참가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이날 회의에는 강동석 조직위원장

과 로세르 탈레스 국제박람회기구(BIE) 사무총장을 비롯해 99개국 정부대표와 6개 국제기구 대표 등 250여명이 참가해 400여일 앞으로 다가온 여수엑스포에 대한 관심을 반영했다.

참가국들은 특히 여수엑스포에서 추진중인 세계 최초의 ‘사이버박람회’에 대해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로세르 탈레스 사무총장은 “여수엑스포는 한국의 뛰어난 IT와 인터넷을 활용한 세계 최초의 박람회로 직접 박람회장에 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 주제 중심의 전문화된 신개념 엑스포를 즐길 수 있다”며 “목표 관람객 수 800만명을 훨씬 뛰어넘는 성공 박람회가 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강동석 위원장은 “여수엑스포는 바다와 관련된 신기술을 소개하고 해

양 생태계의 비전을 구체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엑스포를 계기로 여수를 아시아의 톱 관광지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북한의 참가 가능성에 대해 “지난해 BIE 총회에서 북한에 참가 요청을 했다. 당시 북한 대표가 긍정적인 표정을 보였다. 정부와 협의해 참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스페인이 참가통보국 최초로 ‘멜르스피나 해양프로젝트’라는 전시 주제를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18세기 스페인 출신 탐험가의 이름을 딴 이 프로젝트는 기후변화가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해양 생물 다양성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던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스페인 또한 여수박람회를 통해 자국을 알리고 한국과 스페인간 문화적 격차를 좁히기 위해 플라시도 도밍고 공연과 피카소 전시회도 박람회 기간동안 추진할 계획이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 강운태 시장, 아이웨이웨이 석방 촉구 “예술정신 물리적인 제한 안돼”

강운태 광주시장이 중국의 저명한 설치미술가이자 인권운동가로서 제4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공동감독을 맡은 아이웨이웨이(艾未未·53)의 석방을 촉구했다.

강 시장은 6일 재단법인 광주비엔날레 이사장 자격으로 6일 상명을 내고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공동에 솔 감독인 아이웨이웨이에 대한 중국정부의 감금사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행방이 알려지지 않은 그의 신병에 대해 즉각 현재의 상태를 공개할 것도 요구했다.

강 시장은 “광주비엔날레재단은 그동안 중국 정부 당국이 아이웨이웨이에 대해 수차례에 걸친 가택연금과

출국금지 등을 통해 물리적 억압을 자행해온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며 “이는 예술가에게 생명과도 같은 자유와 상상력, 사회적 참여의 의지를 물리적으로 제한하는 가혹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강 시장은 “민주와 평화, 인권도시인 광주의 정체성과 시대정신을 바탕으로 탄생한 광주비엔날레는 한 위대한 예술가로서 아이웨이웨이의

인본주의적 창작정신을 존중하고 지지한다”며 “전 세계 30개국 200여명의 예술가가 참가하는 비엔날레의 차질없는 진행을 위해 그의 위대한 예술정신을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조속히 석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아이웨이웨이 감독은 지난해 12월 이번 디자인비엔날레 핵심 프로그램 중 하나인 어번폴리(Urban Poly-도시 조형건축물) 프로젝트에 참여하려고 한국에 들어오려다 ‘노벨평화상 시상식 대리 참석’ 오해를 받아 중국 공안당국에 의해 출국을 제지당한 바 있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광주의 새로운 명문 대학교  
**남부대학교**  
(062) 970-0114  
꿈을 이루는 특성화 대학  
**전남과학대학**  
(061) 360-5050

학교설립 57주년 (1954-2011)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ABC협회 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광주일보는 지역 대표 정론지입니다

## Reader(리더)가 Leader(리더)가 됩니다!

세상을 이끄는 리더들은 하루를 신문 읽기로 시작합니다. 초등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한 고 정주영 회장은 자신을 '신문대학' 출신이라 공공연히 이야기 했습니다. 그는 신문을 통해 많은 지식과 정보를 얻어냈고 특유의 창의력과 결단력을 만들어 냈습니다. 신문은 그를 시대의 리더로 만들어 냈습니다.

신문 읽기 습관은 세상을 보는 눈을 키웁니다. 미래를 읽는 혜안을 만들어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